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과제*

A Literature Review on User Instruction of Korean Academic Libraries

김령은(Ryoung-Eun Kim)*

이제환(Jae-Whoan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이용자교육 연구의 과제 |
| II. 이용자교육 연구의 추이 | 1. 연구 주체의 한계와 과제 |
| III. 이용자교육 연구의 특징 | 2. 연구 내용의 한계와 과제 |
| 1. 연구의 내용적 특징 | 3. 연구 방법의 한계와 과제 |
| 2. 연구의 방법적 특징 | V. 결론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이용자교육 연구가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하여 생산된 127편의 연구물을 수집하여 내용적, 방법적 특징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이용자교육 연구는 양적으로 빈약한 가운데서도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온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실효적인 지적 기반'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 국내 고유 상황에 대한 토착적인 접근보다는 도서관선진국의 이론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으며,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도 해외 자료와 양적 방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다보니 연구결과의 실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키워드: 도서관교육, 서지교육, 이용교육, 이용자교육, 정보활용교육, 대학도서관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research products on user instruction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The focus is on identifying the trend, main features, and limitations of the relevant literature, with emphasis on both contents and methodology. To the end, 127 journal articles and theses are collected and analyzed, which have been produced since the mid-1970s. As a result, it is recognized the advanced research are not useful enough to be a knowledge base of Korean reference librarians, who have endeavored to improve the qualities of their user instruction programs. Above all, the advanced research turned out to be too much dependent on American theories and practices, instead of focusing on both indigenous phenomena and substantial problems which have been inherent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Keywords: Library instruction, Bibliographic instruction, User instruction, User education,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 울산과학기술원 도서관 사서(rekim@unist.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7년 8월 19일 •최초심사: 2017년 8월 29일 •게재확정: 2017년 9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83-112, 2017. [http://dx.doi.org/10.16981/kliiss.48.201709.83]

I. 서론

문헌정보학 교재에 따르면 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은 사서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기록의 관리자’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교육자’로서의 이미지를 더해주는 핵심 업무이다. 구미의 도서관선진국에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시대에 따른 변화는 있었지만 이용자교육은 정보와 교육의 전문가로서 사서의 직업적 위상과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 핵심 업무로 기능해 왔다(이계환 2011). 다음 인용문에도 나타나듯이 국내 대학도서관계에서도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공감해 왔다.

“이용자교육은 사서들의 전문적이고 지적인 활동이며 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p.23) 뿐만 아니라 “이용자교육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서들의 지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사서를 전문적으로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p.62)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역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이용자교육은 대학도서관의 ‘핵심 업무’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2016년도 대학도서관 통계자료집에 수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상위 20위내의 대규모 대학도서관들이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연평균 횟수는 약 182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수치를 같은 시기에 미국의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회원도서관들이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연평균 횟수(1,045회)에 비교해보면,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시행해온 이용자교육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빈약한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p.119). 그렇다고 해서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실시해온 이용자교육이 질적으로 우수한 것도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 발표된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실무사서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 있다. 이용자교육의 효과 내지는 만족도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의 80% 이상이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이용자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¹⁾ 이용자교육의 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했다면 과연 교육의 주체인 사서들이 스스로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겠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문헌정보학계의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대학도서관의 사서들 사이에서도 이용자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용자교육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부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1) 가령 나성실(1972)의 연구에서는 84.62%, 강혜영(1981)의 연구에서는 80%, 김대형(1986)의 연구에서는 85.4%, 김성진(1989)의 연구에서는 92.38%, 강원대도서관(1993)의 연구에서는 76%, 채명자(1997)의 연구에서는 84.8%의 응답자들(실무 사서들)이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순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약 7년 전에 발표된 연구논문에 게재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다음과 같은 푸념에 주목하였다.

“더 이상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라도 찾아볼 참이면 정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모델이나 웹기반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는 그런대로 눈에 띄이지만, 정착 저와 같이 기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현장의 실무자가 참고할만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연구자들이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지 싶네요.”

2010년 당시, B대학도서관 정보봉사과에 근무하던 H사서가 토로한 이야기이다(이제환 2011, p.4).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우리 대학도서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을 그는 가감 없이 비판하고 있다. 도대체 이용자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가 실효성이 얼마나 부족하였기에 대학도서관 현장 사서의 입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일까? 그 후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관련 연구의 현황과 실상이 궁금하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궁금증을 털어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학이 국내 대학의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출범하고, 도서관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학회가 구성되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학술논문집(즉 『도서관학』)으로 만들어 발간하기 시작했던 1970년부터 국내 학계와 현장에서 생산해온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물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그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의 초점은 기존 연구물의 내용적 변화와 방법론적 특징을 밝혀내는데 집중될 것이며, 특히 기존 연구의 결과가 도서관 현장의 필요(needs)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는데 주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실효적 한계를 드러내고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의 목적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는 만큼, 관련 연구물의 탐색을 위해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주요 도서관과 관련 단체의 간행물(기관지), 그리고 학위논문DB 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술지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그리고 그 학회들의 학술대회논문집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기관지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의 정기간행물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지칭하는 용어가 국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물의 탐색을 위한 용어로 ‘도서관교육’, ‘서지교육’, ‘도서관이용교육’, ‘이용자교육’, ‘이용교육’, ‘이용지도’, ‘정보활용교육’, ‘정보문해교육’, ‘정보리터러시’ 등을 모두 활용하였다.

II. 이용자교육 연구의 추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학자들이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드러낸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 미국의 도서관학을 수입하여 연세대학교에 최초로 도서관학과를 설립한지 거의 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용자 참고서비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표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에 앞서 1970년대 초에 교육학 분야에서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 석사학위논문이 생산된 바 있지만, 학술지논문의 형태로 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연구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²⁾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근철(1976)을 비롯하여 이영자(1976), 신숙원(1977), 정태숙(1978) 등이 학술지나 기관지 등에 도서관 이용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였다.³⁾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논문은 그 숫자도 빈약하였지만 대부분의 논문이 이용자교육에 관한 미국 도서관계의 연구동향이나 실무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그나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논문조차 생산되지 않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이제환 2011).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논문은 모두 127편이었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연평균 2.54편의 논문이 생산되었을 정도로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미약했음을 보여준다. 국내 연구물의 생산 현황을 미국 도서관계의 연구 활동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197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 도서관계에서 생산한 이용자교육에 대한 연구논문이 5,000편을 넘어서며 연평균 논문 생산량이 약 170편에 이르는 것을 참조한다면, 이용자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미약했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Rader 2002). 이처럼 통계적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용자교육 관련 국내 연구의 규모는 미미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국내 연구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가늠해 보고자 127편의 논문을 생산시기와 자료유형 그리고 생산주체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 2) 나성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도서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1972. 나성실은 1976년에 도협월보(vol.17. No.1)에 자신의 1972년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대학교육 개혁과 도서관교육의 의의: 도서관교육 대학교양과정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 3)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학술논문이 있다: 이근철, "도서관교육 교수학습 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31권, 제5호(1976. 5), pp.28-39; 이영자, "미국 대학도서관 이용지도의 발달," 도서관학논집, 제3권(1976. 12), pp. 51-78; 신숙원, "도서관과 문헌 이용지도," 도협월보, 제18권, 제1호(1977. 2), pp.14-19; 정태숙, "대학도서관 이용지도의 방법,"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집(1978. 4), pp.1-12. 이들 중에서 인천교대(현재 경인교육대학)에 재직 중이던 교육학자 이근철은 1970년대 초부터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도서관 이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글을 교육학 분야에서 발표하였다: 이근철, "국민학교 교육프로그램의 도서관 이용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고찰", 교육논총(인천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원 발행). Vol.5(1974), pp.125-147.

〈표 1〉 생산시기와 자료유형에 따른 논문의 생산 현황

	학술지 논문	기관지 논문	학위논문	합계
1970년대	2	2	0	4
1980년대	7	2	4	13
1990년대	5	2	8	15
2000년대	33	8	24	65
2010년대	18	5	7	30
합계	65	19	43*	127

* 43편의 학위논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은 4편이며, 4편 모두 2000년대(2005~2007)에 생산되었다.

〈표 1〉은 그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논문의 생산시기에 따른 양적 변화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2000년을 전후하여 논문 생산량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즉, 127편의 논문 중에서 32편은 2000년 이전에 생산되었지만 76%에 해당하는 95편은 2000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논문의 유형에 따른 분포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전체 논문 중에서 약 51%에 해당하는 65편의 논문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학술지를 통해, 약 15%에 해당하는 19편의 논문이 주요 도서관 혹은 관련 협의체의 기관지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43편이 학위논문의 형태를 띠고 생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가 도서관 실무 현장보다는 학계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학술지와 기관지에 실린 논문만을 분리하여 생산주체에 따라 분석해 보아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표 2〉에 정리하였듯이, 학술지나 기관지에 수록된 84편의 논문 중에서 학계(교수나 강사)에 의해 생산된 논문은 모두 47편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⁴⁾ 특히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65편의 논문 중에서 교수나 강사에 의하여 생산된 논문이 42편(약 65%)일 정도로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가 도서관 현장의 실무 경험보다는 학계의 이론적 관심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한편, 後(후)에 ‘연구물의 내용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 상술하겠지만, 이용자교육에 관한

〈표 2〉 생산주체에 따른 논문(학위논문 제외)의 생산 현황⁵⁾

	학술지				기관지				합계			
	교수	강사	사서	학생	교수	강사	사서	학생	교수	강사	사서	학생
1970년대	1	1	0	0	0	1	1	0	1	2	1	0
1980년대	7	0	0	0	1	1	0	0	8	1	0	0
1990년대	4	0	0	1	1	0	1	0	5	0	1	1
2000년대	13	4	14	2	1	0	7	0	14	4	21	2
2010년대	9	3	3	3	0	0	5	0	9	3	8	3
합계	34	8	17	6	3	2	14	0	37	10	31	6

4) 학생이 제1저자로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3편의 논문은 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생산 현황을 주체에 따라 집계할 때 공저자의 경우는 제1저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가령, 저자명의 기입 순서가 ‘교수-사서’ 혹은 ‘교수-강사’ 혹은 ‘교수-학생’의 경우는 ‘교수’에, ‘강사-교수’인 경우는 강사에, ‘사서-교수’인 경우는 ‘사서’에, 그리고 ‘학생-교수’인 경우는 학생에 포함하였다.

국내 연구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우리 연구팀이 주목한 또 하나의 특성은 도서관이 주도하는 이용자교육을 지칭하는 ‘용어’의 변화였다. 가령, 논문의 제목에서부터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의 차이가 뚜렷하다. <표 3>에 정리하였듯이, 2000년 이전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제목에는 ‘이용지도’, ‘이용교육’, ‘도서관교육’, ‘서지교육’, ‘이용자교육’ 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제목에 ‘이용지도’가 등장하는 논문은 주로 1970년대에 국한하여 나타나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 ‘도서관교육’ 혹은 ‘이용교육’이,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서지교육’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논문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안은 초기의 연구자들은 ‘이용자교육’보다는 ‘이용교육’을 선호했다는 점, 그리고 한글로는 다양한 표현이 혼용되고 있지만 논문의 영문제목에는 거의 대부분 ‘library instruction’ 혹은 ‘bibliographic instruction’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문용어의 한글화 과정에서 통제와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점이 초기부터 상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⁶⁾

한편, 이용자교육, 특히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2000년 이후에는 제목에서부터 뚜렷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논문제목에 ‘이용교육’이나 ‘이용자교육’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를 대신해 ‘정보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 ‘정보문해교육’ 또는 ‘정보리터러시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도서관’의 경계를 뛰어넘어 ‘정보’

<표 3> 생산시기에 따른 논문 제목의 변화 사례

	용어	논문 제목
2000년 이전	이용지도	· 미국 대학도서관 이용지도 의 발달 (이영자 1976) · 대학도서관 이용지도 의 방법 (정태숙 1978)
	이용교육	·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에 관한 소고 (김병주 1982)
	이용자교육	·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 에 관한 고찰 (최은주 1984)
	서지교육	·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서지교육 의 동향에 관한 고찰 (최은주 1989) · 서지교육 에서 사서-교수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연구 (강혜영 1998)
2000년 이후	정보이용능력	·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강혜영 2002)
	정보이용교육	· 정보이용교육 활성화 전략 (남태우, 정재영 2003)
	정보문해	· 대학생을 위한 정보문해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고영만 2004)
	정보활용능력	· 웹과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연구 (이현실 2004) · 교양교육으로서 정보활용능력 교육 위상 강화 방안 (한만성 2014)
	정보리터러시	·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오의경, 장혜란 2005) ·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리터러시 에 관한 소고 (오의경 2013)
	정보활용교육	· 대학생을 위한 웹기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수희, 최성우 2006) ·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정재영 2015)

6) 이러한 용어의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제환, “한국 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pp.3-27.

를 강조하면서 이용자교육의 목표와 의미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대학도서관계의 의중이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그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 도서관계의 흐름에 민감한 국내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있었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도서관계에서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그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국내 학계의 연구자들과 현장의 사서들 가운데 그러한 변화를 서둘러 도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게 확산되었던 것이다(이제환 2011).

이처럼 선행연구에 대한 외형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도서관계의 관심과 연구 의욕은 초기에는 매우 미약하였으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소폭이나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용자교육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 현장의 실무적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문헌정보학계의 이론적 관심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논문제목의 변화를 통해서, 비록 아직은 추론에 불과하지만,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도서관과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용지도 혹은 이용교육’에서 ‘정보활용교육 혹은 정보문해교육’으로 대거 옮겨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변화는 당시 미국 도서관계에서 나타나던 이용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서둘러 받아들이고자 했던 문헌정보학계의 연구진과 대학도서관계의 실무진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연구에 대한 외형적인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특징이 선행연구의 내용에는 과연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나아가 그러한 내용적 특징은 국내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127편의 논문을 내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고자 한다.

Ⅲ. 이용자교육 연구의 특징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가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이다. 이에 여기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물의 내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내용적 특징

기존 연구물의 내용적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주제 분류 방법을 참조하되, 이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여 다음 9개 세부 주제로 분류하였다: ①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 ② 교육실태 조사, ③ 교육사례 소개, ④ 교육프로그램(면대면) 모형 제시, ⑤ 교육프로그램(웹기반) 모형 제시, ⑥ 교육효과 평가, ⑦ 영향변인 관계분석, ⑧ 교육주체

논의, ⑨ 국내 연구동향 분석 등(서만덕, 남태우 2010, 김수정 2015). 한편, 내용적 특징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쏠렸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가. 2000년 이전의 연구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이용자교육 연구는 연구물 자체가 적은 만큼 다루고 있는 세부 주제 또한 제한적이다. <표 4>는 앞서 설정한 9개의 세부 주제에 따라 해당 연구물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9개의 세부 주제 중에서 6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물이 고루 생산되었지만, 이 시기 연구물의 대부분은 세 개의 주제, 즉,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 ‘교육실태 조사’, 그리고 ‘교육효과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는 이용자교육 연구의 초창기부터 1990년대 말까지 20여 년 동안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였다. 1976년에는 이영자가, 1977년에는 신숙원이, 1978년에는 정태숙이, 1984년에는 최은주가, 1986년에는 한경신이, 1988년에는 다시 최은주가, 그리고 1998년에는 김병주와 강혜영이 이용자교육의 개념을 소개하고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미국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의 논문을 학술지 또는 기관지 등에 연이어 발표하였다. 초창기에 연구자들이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기울인 주제는 ‘이용자교육의 실태에 대한 조사’였다. 1982년에 김병주가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에 대한 소고”를 통해 당시 이용자교육의 부실한 모습을 드러내 보인 이래, 이 주제는 대학원생 석사학위논문의 단골 주제가 되었다. 즉, 1986년 김대형의 논문에서부터 1999년 권숙경의 논문에 이르기까지 5편의 논문이 이용자교육의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앞서 두 세부 주제만큼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당시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었던 또 다른 주제는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었다. 1980년대 말에 강미혜와 장혜란 등은 이용자교육이 도서관 이용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용자교육의 당위성

<표 4> 2000년 이전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연구의 현황

핵심 세부 주제	저자(연도)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나성실(1976), 이영자(1976), 신숙원(1977), 정태숙(1978), 권문영(1980), 최은주(1984, 1989), 한경신(1986), 이한용(1986), 장혜란(1987), 이현우(1992), 김병주(1998), 강혜영(1998, 1999), 서진원(1999)
교육실태 조사	강혜영(1981), 김병주(1982), 김대형(1986), 황미연 외(1993), 신선옥(1995), 남선영(1997), 채명자(1997), 권숙경·성기주(1999)
교육사례 소개	신현상(1999)
교육프로그램 모형 (면대면)	정애자(1992)
교육프로그램 모형 (웹기반)	김성자(1998), 이란주(1999)
교육효과 평가	이은하(1987), 강미혜(1989), 장혜란(1989), 김성진(1989), 신배기(1991)

※ 밑줄로 표기한 것은 학위논문임

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일회성으로 그쳤으며, 1991년에 생산된 1편의 석사학위논문(신배기 1991)을 끝으로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한동안 중단되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세 주제에 관한 논문들은 연구의 목적과 각론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이용자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즉, 대학 교육과정에서 ‘정규과목’으로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는 이용자교육이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의 제시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 당시 연구자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⁷⁾ 이렇듯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기초하기보다는 이용자교육의 필요성을 자의적으로 강조하면서 도서관선진국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따라가자는 주장이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이용자교육 연구의 주요 내용이었다. 거기에 이용자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학위논문들이 추가되어 있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2000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용자교육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토착적인 고민, 즉, 국내 상황에 적합한 ‘이용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다.⁸⁾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학위논문의 형태로 교과과정에 대한 때 이른 논의를 펼치거나(정애자 1992) 도서관전산화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웹기반 교육모형에 대해 소개하는 연구(김성자 1998, 이란주 1999)가 때 이른 모습을 보이는 수준이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이용자교육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주체의 문제는 이용자교육의 실행 목적은 물론이고 사서직의 직업적 전문성과 문헌정보학의 교육적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 교육주체로서 사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논의한 국내 연구는 두 편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본격적인 학술논문은 1998년에 생산된 강혜영의 논문이 유일할 정도로 2000년 이전에 이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은 미미하였다.⁹⁾

7) 1972년에 석사학위논문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용자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나성실 1972)은 1990년대 말까지도 지속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단순한 정규과목이 아니라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신선옥 1995).

8)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당시 강단의 이론과 현장의 역량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실무자는 물론이고 연구자의 시각에서도 이용자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했다. 즉, 이용자교육의 핵심 내용은 ‘오리엔테이션 수준에서 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도서관자료의 이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퍼져있었다. 대학 입학 전까지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 이용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시설, 자료, 서비스’를 소개하고 도서관 자료를 학습목적에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으로 이용자교육은 충분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9) 강혜영은 1998년에 발표한 ‘서지교육에서 교수-사서의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주체의 하나로서 사서의 책무에 대해 강조하였다. 물론 그보다 훨씬 앞선 1980년에 이화여대의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권문영이 “도서관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한 사서와 교수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기도 하였지만(권문영 1980), 이 주제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강혜영의 학술지논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나. 2000년 이후의 연구

2000년 이후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은 연구물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연구의 주제가 이전보다 다양해졌으며, 연구의 성격에 있어서도 서술적 연구보다는 분석적 연구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5>는 앞서 설정한 9개 세부 주제에 따라 이 시기에 생산된 연구물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교육에 있어서의 ‘영향변인 분석’, ‘교육주체 문제’, ‘연구동향 분석’ 등과 같이 세부 주제가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분석적인 성격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특징은 ‘교육과정(혹은 프로그램)의 모형’에 관한 연구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0년 이전에는 단 1편에 불과했던 교육모형에 관한 연구가 2000년 이후에는 무려 19편이나 생산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이용자교육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결과로 보인다. 그에 더해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관련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나 설명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인 진단과 합리적인 처방을 담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계량적 관점에서 분석하여도 2000년 이후에 연구자들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보인 세부 주제는 ‘교육모형의 개발(혹은 제안)’에 관한 것임이 드러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은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모형을 개발’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세부 주제는 ‘정보활용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¹⁰⁾ 교육모형을 제안하면서 교육주체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연구도 등장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대학도서관 사서가 주도하는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가 여럿 진행되었다.¹¹⁾ 이에 더해 웹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모형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은 주어졌다. 초창기에는 ‘웹기반 교육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이론 연구가 생산되기도 하였지만(이란주 2001), 이후에는 특정 대학도서관이 개발한 웹기반 교육시스템을 사례로 하여 그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효용성을 검증하는 내용의 학위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¹²⁾ 그러나 대학원생들의 그러한 관심도 일시적인 것이어서 2010년 이후에는 관련 연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2000년 이전에 연구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활성화 방안의 제시’는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다. 단지, 앞

10) <표 5>에 정리해 놓은 연구물 중에서 고영만(2004)을 비롯한 김순희(2005 & 2006), 최상희·박명규(2006), 김성은·이명희(2006), 김지은(2011), 정재영(2015)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1) 당시 사서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모형에 대한 연구는 접근 방법에서 양분되어 있었다. 하나는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을 이용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도서관계에서 제시한 정보활용능력의 세 요소 및 교육모형에 근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12) 대표적인 사례로 홍희경(2001), 신경훈(2003), 윤상림(2005), 박수희(2005), 최성은(2006), 남궁정아(2009), 정준혁(2009)의 학위논문이 있다.

<표 5> 2000년 이후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연구의 현황

핵심 세부 주제	저자(연도)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김경미(2002), 장덕현(2002), 남태우·정재영(2003), 이창수·김신영(2003), 김태경(2005), 유재욱·곽동철(2006), 권순애 외(2007), 김영숙(2007), 이제환(2011), 정미정·권나현(2013), <u>이은빛(2014)</u> , 한만성(2011, 2014), 정재영(2015), 최재황(2016a,b), 사대도협(2016)
교육실태 조사	진혜영·황인영(2003), 전정순(2008), 장익준(2011), 김은주(2011), 정미정(2014), 정미정·권나현(2014a), 사대도협(2017)
교육사례 소개	전혜영(2000), 홍순영(2001), 임산웅(2002), 박성희(2005), 이현실·황동렬(2007), 박명규(2008), 정민화(2011)
교육프로그램 모형 (면대면)	민지은(2002), 강혜영(2002), 고영만(2004), 이현실(2004), 최상희·박명규(2005), 김순희(2005), 김순희(2006a,b), 김성은·이명희(2006), <u>최고운(2007)</u> , 김성은(2007), <u>김나원(2008)</u> , 김나원·이지연(2008), 이상희(2008), 이용재·이상희(2008), 장덕현·최고운(2008), <u>이연주(2009)</u> , 김지은(2011), 이해영(2011 & 2012), 정재영(2015), <u>이지영(2015)</u> , <u>최재황(2016c)</u>
교육프로그램 모형 (웹기반)	이란주(2001), 홍희경(2001), 신경훈(2003), 윤상림(2005), 최성은(2005), 박수희(2006), 박수희·최성우(2006), 최성은(2006), 정재영(2008), 남궁정아(2009), 정준혁(2009)
교육효과 평가	박남진(2000), 차종상(2001), 유재욱(2004), 이정연·정동열(2005), 안혜연(2005), 이정연(2005), 이현실·최상기(2005), 김순희(2006c), 노동조·민숙희(2006), 이정연·최은주(2006), 김성은·이명희(2007), <u>전규태(2009)</u> , <u>정민화(2009)</u> , 정영미(2009), <u>이병주(2009)</u> , 김승희·홍세희(2016)
영향변인 분석	오의경·장혜란(2005), 오의경(2006), 최은주·박남진(2005), 박남진(2005), 박남진·최은주(2006), 김연례·강혜영(2007), 이수상(2007), 김성원(2011), <u>송이슬(2015)</u>
교육주체 문제	우성연(2013), 정미정·권나현(2014b)
연구동향 분석	서만덕·남영준(2010), 박명규·김희정(2011), 김수정(2015),

* 밑줄로 표기한 것은 학위논문임

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 이전과는 달리 2000년 이후에는 ‘이용자교육’보다는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핵심 용어가 ‘이용자교육’에서 ‘정보활용교육’으로 바뀌었을 뿐 연구의 논점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미국의 사례와 관련 기준을 인용하면서 정보활용능력을 대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인 학습능력으로 설정하고, 정보활용교육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2000년대로 접어들어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00년 이전의 연구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 도서관계의 현황(특히 실무 현황과 인력의 역량)을 중시하면서 이용자교육의 부실 원인을 진단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간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제환 2011, 정재영 2015).

이에 더해, 이 글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국내 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이 아직 제자리를 차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행연구의 주장이나 제안이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2000년대 접어들면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주제가 이용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다. ‘교육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간헐적으로 생산되다가 1990년대에는 아예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10편이 생산될 정도로 인기있는 세부 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적 성장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가령, 평가 요소나 모델의 개발과 같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유재욱 2004, 이정연·정동렬 2005 등),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대학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사례로 하여 그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구물은 거의 대부분이 석사학위논문으로 연구의 품질이나 비중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¹³⁾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연구물 중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용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연구와 이용자교육의 운영 사례를 분석한 연구이다. 전자에 속하는 7편의 연구가 주로 학위논문의 형태로 생산된 데 비해서 후자에 속하는 7편의 연구는 모두 현직 대학도서관 사서에 의하여 생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단 1편의 학위논문에 불과하지만 이용자교육의 주체로서 사서의 역할 문제를 거론한 연구물이 다시 등장한 것 또한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특히 대학의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되어 왔던 정보활용교육을 사서가 주도하는 단기 강좌 형태로 시도하자는 주장이 현장 사서의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제기되었던 점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최고운 2007). 그런 가운데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용자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평가하는 리뷰 형태의 논문이 등장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서만덕, 남영준 2010, 김수정 2015). 이처럼 2000년 이후 연구에서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내용적 특징은 연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연구 세부 주제의 확대, 그리고 논문제목에서의 용어의 변화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문제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적 특징

이용자교육 연구의 방법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118편의 선행연구를 두 가지 기준(즉, 연구의 성격과 데이터 수집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¹⁴⁾ 우선, 연구의 성격에 따른 방법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문헌연구, 조사연구, 현장연구, 실험연구, 그리고 기타 연구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를 <표 6>에 정리하였는데, 이용자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조사연구(34%), 문헌연구(32%), 실험연구(29%)가 고르게 생산된 반면에 현장연구(8%)는 상대적으로 빈약했음을 알 수 있다.¹⁵⁾ 그러나 표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연구의 성격에 있어서 각별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생산시기에 따른 변화이다. 무엇보다도 전체 연구의 양적 증가에 맞추어 문헌연구의 증가폭은 꾸준한 편이지만, 실험연구와 조사연구의 생산량은

13) 대표적인 사례로 박남진(2000), 이정연(2005), 안혜연(2005), 이현실(2005), 박수희(2006), 민숙희(2006), 김성은(2007), 전규태(2009), 정민화(2009), 이병주(2009) 등의 학위논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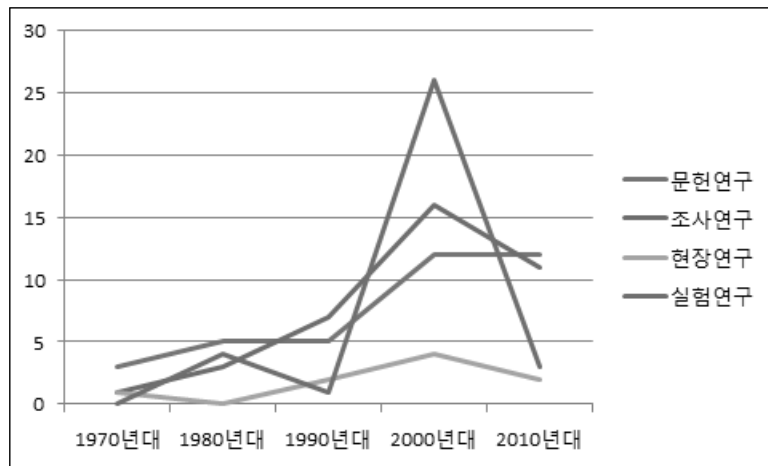
14) 학위논문에 기초하여 발표된 학술지논문은 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준비 과정에서 생산된 학술지논문은 논문의 발표일자를 참조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전체 127편 중에서 최종 학위논문을 축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9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118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5) 현장연구(8%)에 포함된 9편은 현장 사서들이 근무하는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다.

시기에 따른 변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실험연구의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서 10년 동안은 생산량이 급증하더니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다시 급감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험연구에 비해 그 정도가 덜 하지만 조사연구 또한 2000년대의 양적 성장에 비해 2010년대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그림1> 참조).

<표 6> 연구의 성격에 따른 생산 현황

	문헌연구	조사연구	현장연구	실험연구	계
1970년대	3	1	1	·	5
1980년대	5	3	·	4	12
1990년대	5	7	2	1	15
2000년대	12	16	4	26	58
2010년대	12	11	2	3	28
계	37	38	9	34	118



<그림1> 연구의 성격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 추이

이렇듯 국내 이용자교육 연구가 생산시기에 따라 그 성격에 있어서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는 배경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연구자의 성격과 연구 목적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즉,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원을 설치하는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증가하면서 2000년대부터 학위논문의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에 의한 교육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과정에 대한 실험연구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이에 더해 1990년대 후반부터 전통적인 도서관교육이나 서지교육을 넘어서는 정보활용교육의 개념이 국내에서도 확산되면서 선진(?)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학계와 현장에서 일어났다. 학계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교육모형을 참조하여 국내용 교육모형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보였고, 현장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강좌를 실험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

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욕적인 사서들은 이론적 기반의 강화를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하였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정보활용교육의 모형 개발이나 교육의 효용성 검증을 그들의 학위논문 주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렇듯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실험연구와 조사연구의 급증 현상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데이터의 수집방법에 따른 선행연구의 방법적 특징이었다. 분석 결과,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설문조사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법만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가 48편이었으며 설문조사법을 병행한 연구가 15편이었다. 이처럼 설문조사법을 통해 논점 전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가 모두 63편으로 전체 연구의 53%에 해당하였다. 설문조사법에 이어 많이 활용된 방법은 문헌조사법이었다.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문헌조사법만을 활용한 연구가 36편이었으며, 문헌조사법을 병행한 9편의 연구를 합하면 모두 45편(전체의 약 38%)에 이를 정도로 문헌조사법의 비중 또한 만만치 않았다. 설문조사법과 문헌조사법에 이어서 사례조사법에 의존하여 논점을 풀어간 연구가 10편이었으며, 면접조사법을 단일 방법으로 활용한 연구는 5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한 연구는 모두 18편(15%)이었는데, 설문조사법과 면접조사법을 병행한 연구가 11편으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법에만 기초한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이러한 시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 조금씩 등장하였다.¹⁶⁾

〈표 7〉 세부 주제에 따른 논문의 데이터 수집방법

수집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단 일 방 법	문헌조사법	22	·	·	7	4	1	·	·	2	36
	설문조사법	6	10	1	1	1	20	8	1	·	48
	면접조사법	·	·	·	5	·	·	·	·	·	5
	사례조사법	1	·	7	·	2	·	·	·	·	10
	기타(내용분석)	·	·	·	·	·	·	·	·	1	1
복 합 방 법	문헌조사법+설문조사법	·	·	·	3	1	·	·	·	·	4
	문헌조사법+면접조사법	·	1	·	1	1	·	·	·	·	3
	문헌조사법+설문조사법+면접조사법	1	·	·	·	1	·	·	·	·	2
	설문조사법+면접조사법	2	3	·	3	1	·	·	·	·	9
계		32	14	8	20	11	21	8	1	3	118

※ ①=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 ②=교육실태 조사, ③=교육사례 소개, ④=교육프로그램(면대면) 모형 제시, ⑤=교육프로그램(웹기반) 모형 제시, ⑥=교육효과 평가, ⑦=영향변인 분석, ⑧=교육주체 문제 논의, ⑨=국내 연구 동향 분석

16) 참고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한 연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각각 1편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 9편이 생산되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방법을 세부 주제에 따라 분석해 보면 추가적인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표 7>의 통계에 나타나듯이, ‘교육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는 문헌조사법을, ‘교육실태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법을, 그리고 ‘교육사례에 관한 연구’는 사례조사법을 주로 활용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가운데 ‘교육모형에 관한 연구’ 또한 문헌조사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이나 ‘영향변인의 분석을 위한 연구’의 경우에도 거의 전적으로 설문조사법에 의존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연구의 성격으로 볼 때 문헌연구나 조사연구에 속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현장연구나 실험연구의 경우에도 설문조사법과 문헌조사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각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한 방법적 특징이 과연 선행연구의 신뢰성과 유용성(특히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러한 의문은, 앞서 선행연구의 양적 규모와 내용적 특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과 함께,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반세기가 넘도록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IV. 이용자교육 연구의 과제

1. 연구 주체의 한계와 과제

주지하다시피 어떤 분야의 연구가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논문의 연간 생산량은 2.54편에 불과하다.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2001년~2010년 기간에도 연평균 논문생산량은 6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0년대에 들어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한계는 생산량의 절대적인 빈곤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용자교육 연구가 양적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전문 연구자의 절대 부족이라는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구조적 영세성에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학과가 영세하고 전공 교수가 부족한 것은 태생적 한계라 하더라도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학원 과정의 약화와 함께 예비 연구자조차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표 1>의 통계는 그로 인한 연구량의 전반적인 감소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령,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대학원 과정의 여파로 인해 2000년대 들어서 학위논문의 생산량은 급증하고, 학위논문에 근거하여 생산된 학술지논문과 기관지논문도 덩달아서 증가한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대학원 진학자가 급감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 2010년대의 학위논문 생산량은 급감하였고 덩달아서 학술지논문과 기관지논문도 감소 추세

로 돌아섰다. 이처럼 문헌정보학계의 구조적인 영세성이 이용자교육과 관련한 연구 역량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연구물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영세성 못지않게 도서관 현장의 빈약한 연구 활동 또한 관련 연구의 양적 빈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온 원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앞서 집계한 <표 2>의 통계는 이용자교육 연구에 있어서 현장 사서의 기여가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 도서관계의 경우 실무 사서가 이용자교육 관련 연구물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을 참조할 때, 한국 도서관계의 빈약한 연구 역량과 연구 활동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능히 가늠할 수 있다(이제환 2011). <표 2>의 통계를 다시 인용하자면, 2000년 이전에는 불과 2편의 논문(기관지 수록 논문)만이 현장 사서에 의해 생산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실무 사서에 의한 논문 생산량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문헌정보학과들이 늘어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실무 사서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서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생산하는 학술논문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연구 역량이 개선되고 연구 활동이 촉진되지 않는 한, 관련 연구가 양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안은 어차피 없는 것이다.

2. 연구 내용의 한계와 과제

연구 주체의 한계는 연구의 내용적 한계로 이어져 왔다. 기존 연구물의 대다수가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계의 연구자에 의해 생산되다보니 ‘이용자교육’이라는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도입부에서 인용했던 H사서의 푸념은 기존 연구의 실효성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기존 연구에서는 이용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실무 사서가 참고할만한 내용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대학도서관 현장의 실무자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은 ‘기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명료하다. 그들이 기존 연구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실효적인 지식’이다.¹⁷⁾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대학의 경영진과 교수진 그리고 비전문직 도서관장과 학생들에게 이용자교육의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논리’이며, 교육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토착적인 자료’이며, 도서관선진국에서처럼 사서가 이용자교육의 주체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실무 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지식’을 국내에서 생산된 기존 연구는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온 것이다.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한 『2015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p.113)에는 실무 사서들의 그러한 속내가 잘 드러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참고서비스나 이용자교육과 같은 도서관서비스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잘 드러낼 수 있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역량과 여력이 자신들에게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모순적인 상황은 기존 연구의 내용적 특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용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이래 현재까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의 단골 주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생산된 연구물의 1/3이 이 주제를 핵심 논점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얼핏 보면 대학도서관 현장의 요구가 기존 연구의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어온 것처럼 보인다.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살아있는 지식’은 교육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는 이용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방향에 대한 제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과 방향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연구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보다는 자의적인 주장과 국내 현실과는 괴리된 ‘도서관선진국의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핵심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다.¹⁸⁾ 물론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한 때 증폭되어, 그 결과 10편의 논문이 교육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 대학원생에 의해 생산된 석사학위논문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결과를 실무에 반영하기에는 연구의 방법적 한계가 컸기 때문이었다.¹⁹⁾

그러한 내용적 한계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용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실무 사서들에게는 절실한 ‘지적 기반’의 하나이다. 국내 연구자들 또한 그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기에 이용자교육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물이 ‘교육프로그램의 모형’을 주제로 하여 생산되었을 것이다.²⁰⁾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모형에는 국내 상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교육의 대상자는 분명히 한국의 대학생인데 그들이 이용자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구, 특히

18) 도서관선진국, 특히 미국 도서관계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관심과 모방은 거의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이다. 그러한 논문들을 관통하는 주장의 논지는 일관된다. 즉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평생학습은 매우 중요하며, 독립적인 평생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에서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이다. 이와 같은 논지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의 일부 사서들로부터는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을 뺀 경우로는 여기는 국내 대학의 구성원들, 즉,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대학의 경영진과 교수들, 특히 비전문직 관장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존 연구자들의 의식과 논점이 이러하다 보니, 심지어 미국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역사를 소개하는 논문은 여러 편 생산되었는데 막상 한국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역사를 다룬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9) 가령, 교육효과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 사례조사와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또한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들 스스로 연구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 앞서 분석하였듯이, 2000년대 이후에만 34편의 논문이 ‘교육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을 주제로 하여 생산되었다.

미국 추수적인 연구풍토가 오랜 세월 지속되다보니 미국 도서관계의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을 참조한 ‘모형’들로 대부분의 연구물이 채워져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대학도서관 인력과 문헌정보학계의 인력으로는 운영조차 불가능한 주장(가령, 이용자교육을 정규교과로 개설하여 운영하자는 주장 등)이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²¹⁾ 이렇듯 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교육주체자의 역량에 대한 분석조차 결여한 피상적인 연구가 대부분이고보니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을 운영해야 하는 실무 사서들의 고민과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말에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실무 사서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대도협 2017).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90%가 이용자교육에 관한 사서 커뮤니티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서들은, 첫째, ‘이용자교육의 교재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어서, 둘째, ‘정보활용교육의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서, 셋째, ‘교수법과 대화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에 실무 사서를 위한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교육모형에 관한 연구의 내용적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생산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정보활용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특정 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에도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고민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용자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외형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의 하나가 교육주체의 문제이다. 결코 적지 않은 사서들이 도서관전진국에서 처럼 이용자교육의 주체가 되고자 하지만 업무 역량도 부족하고 교습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앞서 인용한 사대도협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14%가 교수법에 관한 실천적 지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사서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미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결코 적지 않은 대학도서관 사서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교육주체가 되기 위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이용자교육 연구에서는 실무 사서들의 그러한 욕구에 대처할만한 내용을 찾기 힘들다. 그동안 교육주체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미약했기 때문이며,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대학도서관 사서가 이용자교육의

21)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에서 이용자교육을 시행한 초기부터 이용자교육의 정규과목화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는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에는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을 포함하여 여러 대학에서 이용자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였다(나성실 1976).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대학은 급감하는데, 가령, 1980년대 초의 실태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5%에 달하였으나(강혜영 1981), 1980년대 중반 조사에서는 4.9% 급감하였다(김대형 1986). 그러한 감소는 1990년대로 이어져서 1997년의 실태조사에서도 그 비율은 4%로 나타나고 있다(채명자 1997).

주체로 거듭나는데 유용한 방법을 알려주는 연구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²²⁾

3. 연구 방법의 한계와 과제

주지하다시피 연구 방법은 논문의 내적 구조와 수준을 결정하는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유용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연구주체의 선정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구방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지 않으면 연구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중성 2013).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논의한 이용자교육 연구의 내용적 한계는 연구방법의 한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다. 앞서 ‘방법적 특징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이용자교육 연구의 대부분은 문헌연구나 조사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의 수집 또한 주로 문헌조사법이나 설문조사법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교육의 현황이나 실태에 대한 조사 등에서 설문조사법은 필요할 수 있지만 교육효과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설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막상 설문조사가 필요한 연구, 가령, 교육모형을 개발하거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문헌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습 또한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문헌조사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외 문헌에 대한 과도한 의존 경향은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문헌연구의 대부분이 논점의 개발 단계부터 해외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의 배경과 조건 그리고 대상까지도 한국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문헌의 내용에 의존하면서 국내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한다. 학술논문이나 보고서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통계적 데이터나 시스템 기능에 대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일차적 소스는 항상 미국의 주요 도서관이나 협회회의 홈페이지이다. 그리곤 해외의 상황과 국내의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국내와는 상이한 교육과 문화 그리고 도서관 환경에서 해외의 문헌과 시스템 그리고 통계가 산출되었다는 점은 빈번하게 간과된다. 해외의 문헌과 데이터에 의존하여 생산된 연구의 결과가 한국 도서관의 이용자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적일 수 없는 것은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설문조사법의 경우에도 기존 연구의 한계는 뚜렷하다.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방법에 대한 의존이 과도한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기존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의 대부분이 국내 이용자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자교육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설문조사의 대상에서부터 문제는 도드라진다. 조사대상

22) 다음의 인용문은 실무 사서의 그러한 고민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 “그게 그렇습니다. 늘 개점휴업 상태에요. 방학 때면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여 나름대로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개강에 앞서 학교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도 해보지만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자발적인 교육 신청자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만두라는 관장님을 간신히 설득하여 금년에도 조박만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그나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제환 2011, p.2).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편향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가령, 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이나 대학도서관에 편중되어 있거나, 교육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실무 사서들은 배제한 채 피교육자인 학생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도 도서관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해 무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자교육의 바람직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용자교육 업무의 경험도 없고 심지어 이용자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서들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설문조사는 조사연구나 실태분석에서만 활용되어온 것이 아니다. 설문조사는 교육모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교육효과를 평가하거나 영향변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용자교육에 대해 무지한 도서관이용자들과 이용자교육 업무의 경험조차 없는 사서들의 답변에 근거하여 교육의 모형을 제안하고 심지어 영향변인까지 분석해 온 것이다. 기존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한계는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질문항목을 검토해보면 더욱 짙어진다. 대부분의 질문항목이 해외의 관련 문헌에서 차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information literacy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조사대상에게 현행 정보활용교육이 갖는 문제점과 향후 지향해야할 교육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질문을 쏟아놓고 있다. 그리고는 그러한 질문항목에 대한 그들의 답변에 근거하여 교육의 활성화 방안이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있어서조차 실사구시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연구자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과제는 ‘연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즉 연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차분히 되새겨보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연구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지식은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기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된다. 만약에 특정 분야의 연구가 누적되어 새로운 지식의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연구는 무용하며 심지어 유해하기까지 하다.²³⁾ 그런데 국내에서 그동안 생산해온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고유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국내 도서관계에 상존해온 이용자교육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용자교육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국의 교육환경과 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한 실사구시적인 연구에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 연구자조차 변변하지 못한 국내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있는 지식’을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의 후학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실사구시적인 연구태도이기 때문이다.

23)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주체의 선정 단계부터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실사구시적 관점’은 모든 연구의 기본이다. 실증적 연구는 물론이고 이론적 연구의 대부분이 도서관과 정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도서관의 이용자교육이 반세기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국내 상황에서 참고할만한 자료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는 어느 대학도서관 사서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대학도서관이 주도하는 이용자교육의 기본 목표는 이용자가 현재의 정보환경이 요구하는 정보자원의 활용 능력은 물론이고 미래의 정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자원의 활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지적 기반은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정보행태 변화에 대한 이해이다. 나아가 그러한 변화에 적합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방법에 대한 숙지이다. 이처럼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들에게 지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 연구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용자교육을 주제로 하여 생산된 국내 연구의 특성을 조사하고 한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학이 국내 대학의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출범하고, 도서관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학회가 구성되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학술논문집(즉 『도서관학』)으로 만들어 발간하기 시작했던 1970년부터 국내 학계와 현장에서 생산해온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물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그 내용적 변화와 방법적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의 결과가 도서관 현장의 필요(needs)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늠하였으며, 그를 통해 기존 연구의 실효적 한계를 드러내고 향후 관련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는 양적으로 빈약한 가운데서도 도서관선진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주제를 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는 국내의 관련 문제를 풀어 가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주체의 양적 빈곤에 의한 연구 생산량의 절대적인 빈곤과 함께 연구의 내용이 대학도서관 실무 사서들의 ‘기본적인 고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살아있는 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방법에서도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보였다. 문헌조사에서는 해외 문헌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해외의 사례를 국내 대학도서관과 같은 맥락에서 평가함으로써 국내 대학도서관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한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표본 선정과 질문 항목의 사용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교육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국의 교육환경과 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한 실사구시적인 연구(연구의 주제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전문 연구자조차 변변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있는 지식’을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의 후학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실사구시적인 연구태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교육환경과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후속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대학교육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국내 대학교육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대학도서관만의 이용자교육 활성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용자교육의 주체인 사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대학도서관 사서가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용자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실현될 가능성이 미미해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미혜. 1989. 대학도서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율성 비교에 관한 연구-강의: 슬라이드- 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5: 7-44.
- 강혜영. 1981.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이용지도에 관한 연구. 『도서관』, 36(5): 34-44.
- 강혜영. 1998. 서지교육에서 사서-교수의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6: 183-210.
- 강혜영. 1999. 교수들의 도서관 이용과 서지교육 인식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4): 59-86.
- 강혜영. 2002.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97-320.
- 고영만. 2004. 대학생을 위한 정보문해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4): 67-87.
- 권문영. 1980. 『대학에서의 도서관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원 도서관학과,
- 권순애 외. 2007. ACRL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기준. 『사대도협회지』, 8: 209-225.
- 김경미. 2002.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활성화 방안: 교수·사서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3: 97-115.
- 김나원, 이지연. 2008. 이용자 행태 및 요구 분석을 통한 의학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8: 117-124.
- 김나원. 2008. 『이용자 행태 및 요구 분석을 통한 의학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대형. 1986. 『대학에서의 도서관 이용자교육 형태에 따른 효율성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김병주. 1982.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에 관한 소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9: 33-61.

- 김병주. 1998. 대학도서관 이용교육의 발전경향 연구-미국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9: 137-152.
- 김성원. 2011.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 상관관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31-46.
- 김성은, 이명희. 2006.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교수학습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77-200.
- 김성은, 이명희. 2007.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91-115.
- 김성은. 2007.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전공.
- 김성자. 1998. 『WWW기반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시스템 개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김성진. 1989. 『학부교양과목으로서의 도서관 이용법교육과 도서관 이용과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김수정. 2015. 문헌정보학 분야 정보활용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207-239.
- 김순희. 2006. 『디자인분야 정보문해 교육 모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순희. 2006. 디자인분야 대학생의 정보문해 교육을 위한 핵심 정보문해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 5-39.
- 김순희. 2006. 디자인분야 정보문해 교육방법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39-259.
- 김순희. 2006. 온라인 정보문해 과목의 교육 효과 및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33-61.
- 김승희, 홍세희. 2016. 정보활용교육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1): 59-85.
- 김연례, 강혜영. 2007. 대학도서관의 웹 기반 정보활용능력 교육 수용요인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17-144.
- 김영숙. 2007. 『교육대학 학생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김은주.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현황과 실태: 사서의 인식과 역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11.
- 김종성. 2013.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2): 71-91.

- 김지은. 2011. Kuhlthau 의 ISP 모델에 기반한 대학의 정보활용능력 교육과정 모델 개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101-122.
- 김태경. 2005. 특정주제중심의 도서관 이용자교육.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 61-63.
- 나성실. 1976. 대학교육 개혁과 도서관교육의 의의. 『도협월보』, 17(1): 24-29.
- 남궁정아. 2009. 『수업연계 정보활용능력교육을 위한 온라인 튜토리얼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남선영. 1997. 『대학도서관 주관의 이용자교육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보학전공.
- 남태우, 정재영. 2003. 정보이용교육 활성화 전략: 주제별 운영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 45-52.
- 노동조, 민숙희. 2006. 도서관의 학술정보 이용교육방법이 피교육자의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375-394.
- 민지은. 2002.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프로그램 설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남진, 최은주. 2006.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215-232.
- 박남진. 2000.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형태에 따른 교육적 효율성 비교분석: 경인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박남진. 2006.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정규 과목으로서의 정보활용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병규. 2008.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을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9: 75-87.
- 박성희. 2005. Web 기반 이용교육 운영 사례: 숙명여대 도서관 정보이용교육: Cyber 강좌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6: 245-258.
- 박수희, 최성우. 2006. 대학생을 위한 웹기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57-387.
- 박수희. 2005. 『송실대 교육대학원 대학생을 위한 웹기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석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전공.
- 서만덕, 남영준. 2010. 정보활용능력 분야 학위논문 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309-328.
- 서진원. 1999. 대학도서관 변화에 따른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 『국립대학도서관보』, 17: 5-14.

- 성기주, 권숙경. 1999.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 197-200.
- 송이슬. 2014. 『대학도서관 전자학술정보 이용자교육의 수강 여부가 대학원생의 전자학술정보 이용자교육 접근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신경훈. 2003. 『웹기반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 설계기준 연구: 국내외 대학도서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신배기. 1991. 『도서관 이용교육이 대학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신선옥. 1996. 『대학도서관 이용을 위한 서지교육』.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신숙원. 1977. 도서관과 문헌 이용 지도: 대학 정규과목으로서의 필요성. 『도협월보』, 18(1): 14-19.
- 신현상. 1999.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P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안혜연. 2005. 『정보문해교육이 사서교육원 학생의 정보기술과 정보문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의경, 장혜란. 2005.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207-231.
- 오의경. 2006.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보학전공.
- 우상희. 2008. 『의학도서관의 정보이용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우성연. 2013.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담당사서의 교수효능감 인식수준과 교수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유재욱, 곽동철. 2006. 도서관 이용자교육 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2006: 6-29.
- 유재욱. 2004.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이용자의 학술정보이용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블리아』, 15(1).
- 윤상림. 2005. 『정보활용능력을 위한 온라인 튜토리얼 모형』.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근철. 1976. 도서관교육 교수학습 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도서관』, 31(5): 28-39.
- 이란주. 1999.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위한 웹기반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0: 269-288.
- 이란주. 2001. 대학도서관 웹기반 이용자교육에 대한 고찰. 『사대도협회지』, 2: 57-72.

- 이병주. 2009. 『대학도서관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H대학교 학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수상. 2007.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85-103.
- 이연주. 2009. 『의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영자. 1976. 미국 대학도서관 이용지도의 발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 51-78.
- 이용재, 이상희. 2008. 의학도서관 정보이용교육 프로그램 연구: C대학교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9(3): 49-71.
- 이은빛. 2014.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 이은하. 1987.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능력과 이용교육 효과 연구: 이화여대와 서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이정연, 정동열.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4): 39-59.
- 이정연, 최은주. 2006.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315-334.
- 이정연.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평가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제환. 2011. 한국 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3-27.
- 이지영. 2015.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창수, 김신영. 2003.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구성원간 협력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231-250.
- 이한용. 1986. 참고봉사면에서 본 대학도서관의 단체적 도서관이용지도. 『도서관』, 41(1): 32-39.
- 이현실, 최상기. 2005.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91-112.
- 이현실, 황동렬. 2007. 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이용 교육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2007): 145-165.
- 이현실. 2004.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03-322.

- 이현우. 1992. 『시청각매체를 통한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이혜영, 박현영. 2016. 국내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구동향. 『정보관리학회지』, 33(3): 219-238.
- 이혜영. 2011. 대학도서관에서의 과제 작성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369-395.
- 이혜영. 2012. 대학도서관의 인용 및 참고문헌작성 교육 현황.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35-56.
- 임산웅. 2002.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 『사대도협회지』, 3: 161-170.
- 장덕현, 최고운. 2008.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37-60.
- 장덕현. 2002. 대학도서관 이용교육 연구의 동향과 논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55-74.
- 장익준. 2011.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 실태 분석 연구: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혜란. 1987. 대학 정규과목으로서의 도서관 이용교육: 문제점과 진흥방안. 『상명여자대학교논문집』, 20: 197-215.
- 장혜란. 1989. 도서관 이용교육효과의 집단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7: 261-273.
- 전규태. 2009. 『e-러닝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 전정순. 2008.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도서관교육전공.
- 전혜영. 2000. 정보이용능력 개발을 위한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설계. 『사대도협회지』, 1: 205-219.
- 정미정, 권나현. 2013. 대학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교육의 도입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필요조건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9-184.
- 정미정, 권나현. 2014. 대학도서관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운영 현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2): 99-119.
- 정미정, 권나현. 2014.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조사. 『정보관리학회지』, 31(4): 99-119.
- 정미정. 2014. 『대학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교육의 효과적 도입과 운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민화. 2001. 대학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실시 사례. 『사대도협회지』, 12: 21-39.
- 정민화. 2009. 『사서주도의 정보활용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정애자. 1992. 『정규과목으로서의 도서관 이용교육 교과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영미. 2009. 정보활용 교육이 도서관과 정보활용능력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65-280.
- 정재영, 박진희. 2011.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71-191.
- 정재영. 2008. 대학도서관의 웹기반 정보활용교육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195-217.
- 정재영. 2015.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전략적 분석: 현재적 진단과 미래적 방향을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6: 53-79.
- 정재영. 2015.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1-20.
- 정준혁. 2009.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이용자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정태숙. 1978. 大學圖書館 利用指導의 方法.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 1-12.
- 진혜영, 황인영. 2003. 국내 대학의 정보이용능력 교양교육의 표준 지침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 285-294.
- 차종상. 2001.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이 이용자 정보활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 245-248.
- 채명자. 1997.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최고운. 2007. 『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상희, 박명규. 2005. 정보활용 교양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수용 양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121-137.
- 최성은. 2003. 『e-learning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 최성은. 2006. e-learning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사대도협회지』, 7: 31-48.

- 최은주, 박남진.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규 교과목 정보 이용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2(4): 153-172.
- 최은주. 1984.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 논문집』, 15(1): 283-305.
- 최은주. 1989. 미국 대학도서관에서의 서지교육의 동향에 관한 고찰. 『경대학교 논문집』, 23: 63-88.
- 최재황. 2016. AASL(2007)과 ACRL(2015) 정보리터러시 기준에 내재된 정의적 성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115-137.
- 최재황. 2016. ACRL 정보리터러시 ‘프레임워크(2015)’의 중심 개념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171-191.
- 최재황. 2016.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교수설계 모델 분석.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7(4): 163-180.
- 한경신. 1986.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남대학교 논문집』, 16: 65-8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2010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2016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2016. 대학도서관 대학원생 정보활용교육 활성화 방안: S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대학원생 연구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사대도협지』, 17: 113-127.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2017. 대학도서관의 비교과과정 정보활용교육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사대도협 연구보고서』, 17: 1-178.
- 한만성. 2011.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능력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117-133.
- 한만성. 2014. 교양교육으로서 정보활용능력 교육 위상 강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2(1): 117-133.
- 홍순영. 2001. 도서관 이용교육의 현황과 과제-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립대학도서관보』, 19: 55-68.
- 홍희경. 2001. 『웹을 기반으로 한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시스템 구축 및 유용성 평가: 초급이용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황미연 외. 1993. 도서관 이용지도의 모형개발: 시청각자료를 중심으로. 『국립대학도서관보』, 11: 176-190.
- Crawford, G. A. and J. Feldt. 2007.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instruction in academic librari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4(3): 77-87.
- Park, Myung-Kyu, and Hee-Jung Kim. 2011. “A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2): 53–63.

Rader, H. R. 2002. “Information literacy 1973–2002: A selected literature review.” *Library Trends*, 51(2): 242–259.

Sproles, C., R. Detmering, and A. M. Johnson. 2013. “Trends in the literature on library instruc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2001–2010.” *Reference Services Review*, 41(3): 395–41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ERIS. 2011. *2010 Analysis of University Libraries' Statistics*. Seoul: KERIS.

KERIS. 2017. *2016 Analysis of University Libraries' Statistics*. Daegu: KERIS.

Kim, Jong–Sung. 2013. “Trends Analysis of School Library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2): 71–91

Kim, Soojung. 2015.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207–239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2017. *KAPUL Research Report no. 17: Analysis of Case and Activating Plan for Information Literacy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Seoul: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Lee, Jae–Whoan. 2011. “User Education in Korean Libraries: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3–27.

Rhee, Hey Young and Hyun Young Park. 2016. “Research Trends in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219–238.

Seo, Man–Deok and Young–Joon Nam. 2010. “A Research on the Trend of Quantitative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of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4): 309–328.